

## 회원사 대표 초청 고리원자력발전소 방문 회원 협력증진 및 에너지업계 유대강화

한국에너지협의회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회원사대표 및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한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였다.

이번 행사는 전력, 석탄, 석유, 가스등 각 분야별로 구성된 협의회 회원사 대표들이 원자력분야인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에너지분야 유대강화와 협력증진을 도모하였다.

회원사 대표들은 원자력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전시관, 3호기 주 제어실 및 터빈실 그리고 폐기물저장시설 등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으며, 현장답사가 끝난후 전시관 강당에서 에너지분야에 대한 토론회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에너지경제연



구원 신정식 원장의 '중장기 에너지 수요전망 및 주요지표'와 한국 원전연료 임창생 사장의 '원자로 형과 핵연료 주기'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소 김병구 단장의 '핵물질 개량관리'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종훈 회장(한전 사장) 주제로 열린 저녁 만찬에는 참가자들 모두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

에서 에너지업계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과 에너지협의회 회원사간의 협력증진을 통한 미래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하였다.

한국에너지협의회는 각 분야별로 구성된 회원사 대표 및 임원을 초청하여 에너지산업 현장을 직접 시찰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범에너지계의 공동체 의식고취와 상호 협력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 WEC 96 집행이사회 터키에서 개최 2001년 총회 개최지 결정

WEC의 1996년도 집행이사회가 10월 8~9일 터키 쿠사다시에서 개최된다.

금년 집행이사회에서는 2001년 제18차 총회 개최지 선정이 주요

이슈로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최 유치를 신청한 국가는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호주(시드니), 이태리(로마) 3개국으로서 모두 몇년 전부터 유치 홍보활동

을 벌여오고 있다. 1998년 제17차 총회는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키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이번 집행이사회에서는 부의장 증원, 신규회원국 가입,

97년도 연회비 인상 등 여러 안건이 심의 결정되며, 부대행사로 흑해/중양아시아 지역 에너지 포럼,

터키 에너지 데이, 산업시찰 행사 등이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 한국에서는 한국

전력공사 문희성 이사장 등 7~8명의 에너지협의회 회원사 임직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 에너지와 환경친화적 공간이용 연계방안 세미나 개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방안 모색

한국에너지협의회는 지난 7월 5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전력공사 본사 별관 강당에서 '에너지와 환경친화적 공간이용 연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한전등 회원사 및 관련기관 전문가 약 80명이 참석하였으며, 권영무 부사장(한국전력공사)과 신정식 원장(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각각 개회인사와 환영사를 하였다.

선우현범 사장(대림엔지니어

링)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류지철 책임연구위원(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와 국토이용 효율화의 정책과제 및 방향', 류중석 교수(중앙대학교)는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하였다.

이어 이승웅 자원정책과장(통상산업부), 노재화 본부장(한국수자원공사), 김상길 입지처장(한국전력공사), 정동운 이사(유공), 유영희 선임연구위원(국토개발연구원)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발표를

하였으며, 일반 참석자로서 서정호 부사장(LG칼텍스정유)과 남정일 위원(에너지경제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에너지이용을 국토이용에 통합시키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관계로 좀더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가 미흡했던 점 등이 지적되었다. ☞

## WEC 수송부문 에너지 위원회 제1차회의 개최 현대중공업 조동식 부장 참석

WEC가 수송 부문 에너지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구성한 「Global Transport and Energy Development-The Route to the Future」 위원회(한국측 위원 : 이종옥 현대중공업 이사)의 제1차 회의가 지난 6월 26일 런던 WEC 중앙사무국에서 열려 현대중공업 런던지점 조동식 부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의 수송

부문 에너지 수요에 영향을 미칠 핵심 요인 검토, 수송 부문 에너지 소요량 예측 시나리오 작성, 수송 부문의 발전이 환경에 미칠 영향 평가, 이 부문의 제약 요인과 정책 및 기술적 해결 방안 모색, 수송 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제시를 주요 과제로 삼고 위원회 참가국 및 위원별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 위원회의 제1차 프로젝트(1992~1995) 보고서 'Global Transport Energy Demand toward 2020'은 학술적인 방향에 치우친 감이 있어 이번 프로젝트는 정책 및 산업 부문에 보다 비중을 두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금년 10월말 워싱턴에서 가질 예정이다. ☞